

제 1 교시 국어 영역(애니와 매체)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산마그놀리아 공화국. 그곳은 매일 이웃나라인 '기아데 제국'의 무인병기 '레기온'에 침략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격에 맞서 공화국 측도 무인병기 개발에 성공, 가까스로 희생자를 내는 일 없이 제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있었다. 사실은 아무도 죽지 않을 리가 없었다. 공화국 85구의 밖, [제86구]. 거기에서는 '에이티식스'라는 낙인이 찍힌 소년소녀가 밤낮으로 '사람이 탄 무인기'로서 싸우고 있었다.

“저.....”

레나는 두려움에 말을 이었다.

입이 바짝 뻐다. 불길한 상상과 어떤 예감에 몸이 떨렸다. 그걸 가로막듯이 말을 꺼냈다.

“지금 당장 보충의 확인을 받아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이런 건 이상해요!”

스피어헤드 전대는 훨씬 전부터 기능부진에 빠졌다.

병력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휴양도 얻지 못하고 주변 부대에 응원이나 출격 대행을 요청하여 가까스로 방어선을 유지하는 게 현황이다. 그것은 상층부도 알고 있을 텐데 아무런 수도 쓰지 않는다. 응원이나 출격 대행의 요청은 쉽사리 통과되는데, 결원 보충의 요구만 왜인지 통과되지 않는다. 연줄을 이용하는 비열함을 참으며 칼슈타르에게도 고개를 숙였고, 준장 지위인 그를 통했음에도 한 명의 보충도 돌아오지 않는다.

신이 짧게 입을 열었다.

“소령님.”

“준장님에게 다시금 말해서 대답을 받아내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제 소령님.”

다시금 강하게 부르는 소리에 레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들, 괜찮겠지?”

“그래.”

대표로 라이덴이 수궁했다. 다른 모두의 무거운 침묵.

“.....무슨 소릴.....?”

“㉠ 소령님. 이제 됐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노우첸 대위. 그게 무슨?”

“보충은 안 옵니다. 단 한 명도. 결코.”

“.....예?”

그리고 신은 조용히 그것을 말했다. 모두가 알면서도 레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실을.

“㉡ 우리는 전멸합니다. 이 부대는 그걸 위한 처형장입니다.”

“무.....”

그 순간 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멸한다? 그러기 위한 처형장?

“무슨, 소릴.....”

갑자기 레나는 깨달았다.

6년 전에 만났던 레이는 에이티식스이며 프로세서였다.

그렇다면 왜 레이의 동생인 신이, 레이의 종군으로 공화국 시민으로 돌아갔어야 할 신이 지금 프로세서로서, 에이티식스로서 전장에 있지?

다른 프로세서도 그렇다. 매 년 수만 명의 신병이 전선에 보내진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수 만 명이나 되는 그들의 부모나 형제들은 모두 여태까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설마.....!”

“㉢ 그래. 그 설마야. 하얀 돼지들은 에이티식스에게 시민권을 줄 생각 따윈 처음부터 없었어.”

“그걸 미끼로 마음대로 써먹고 죽이는 거야. 진짜로 돼지. 최악이야.”

레나는 곧바로 고개를 내저었다. 그녀의 논리로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공화국이. 나고 자란 조국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세오가 작게 탄식했다. 규탄이 아니라 괴롭고, 어딘가 배려의 울림이 담긴 목소리였다.

(중략)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망가졌다.

지키려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라고 싸우게 한다. 그것은 이미 군역의 강제도 아니다. 외적을 이용한 학살이다.

“하..... 하지만.”

일말의 희망에 매달리듯이 레나는 말했다.

“㉣ 그래도 혹시 살아남으면.....”

“㉤ 아아, 그렇게 도무지 죽어주지 않는 놈도 있지.그런 녀석도 처분하기 위해 여기 임기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게 성공률, 생존률 0의 특별정찰 임무야. 여태까지 거기서 살아 돌아온 놈은 없어. 하얀 돼지들로서는 쓰레기 처리 완료, 만만세지.”

“.....”

방어를 위해 죽음만이 있는 전장에 대가도 없이 보낸다. 오래 살아남으면 거슬린다는 듯이 전사를 목적으로 계속 싸우게 하고, 전사를 위한 부대에 보낸 끝에..... 그래도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죽으라는 명령을 내린단 말인가.

분노 때문에 눈물이 떠올랐다.

이 나라는. 어디까지. 대체 어디까지.

씩어 빠져서.

틈만 나면 한가하다, 한가하다, 노래하던 세오나 라이덴을 떠올렸다.

임기가 끝나면 뭘 할 거냐고 묻자, 생각한 적도 없다고 대답한 신을 떠올렸다.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도, 바람 미래도.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이제 됐습니다'는 등장인물이 이전까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내용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 전개 의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우리는 전멸합니다'는 화자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진실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의 전개가 심화된다.
- ③ ㉢의 '그래, 그 설마야'는 청자의 예상에 동의를 표하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화자와 '에이티식스'가 처한 상황이 청자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의 '그래도'는 화자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 ⑤ ㉤의 '특별정찰 임무'는 화자가 곧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자의 기대가 충족될 일이 없음을 드러낸다.

3. 에이티식스와 레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오나 라이덴이 '한가하다'라고 한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② 레나가 출격 대행 요청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물랐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에 기대'할 수 있었다.
- ③ 레나의 '몸이 떨린' 이유는 신으로부터 들은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 ④ 세오가 레나에게 '구탄이 아니라 괴롭고, 어딘가 배려의 울림이 담긴 목소리'를 한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이유가 레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⑤ 레나가 '기능 부진'에 빠진 스피어헤드 전대를 돕기 위해 '비열함을 참으며' 칼슈타르에게 부탁한 이유는 신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이유가 없었'음을 물랐기 때문이다.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 내리는 3월 하늘에 페리의 출항을 알리는 기적이 길게 울렸다.

거대한 선체가 해수면을 밀고 나가는 묵직한 진동이 엉덩이에서 온몸으로 전해졌다.

내 표는 배의 밑바닥과 가장 가까운 이등 선실. 도쿄까지는 열 시간 이상 걸리는 배길로 밤이 돼야 도착한다. 이 페리를 타고 도쿄에 가는 것은 태어나 두 번째였다. 나는 일어나 갑판 테라스로 이어진 계단으로 향했다.

학교에 ‘너석에게는 전과가 있는 것 같아’라거나 ‘지금도 경찰에 쫓긴대’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건 2년 반 전 도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소문이 도는 것 자체는 뭐라 할 바 아니지만 - 사실 소문이 도는 게 당연했다 - 나는 그 여름, 도쿄에서 있었던 일을 남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말한 적은 있으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경찰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름의 일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은 채 다시 도쿄로 가는 것이다.

열여덟이 된 지금, 이번에는말로 그 거리에서 살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생각만 하면 늘 갈비뼈 안쪽이 뜨겁고 뺨이 화끈거렸다. 나는 빨리 바다바람을 쐬고 싶어 계단을 오르는 발길을 재촉했다.

갑판 테라스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비와 함께 후드득 얼굴을 쳤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나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거기에는 봄기운이 듬뿍 담겨 있었다.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라는 실감이 늦게 도착한 알림처럼 새삼스레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갑판의 난간에 팔꿈치를 대고 멀어져가는 섬을 보다가 다시 바람이 휘몰아치는 하늘을 바라봤다. 시야가 미치는 저 멀리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빗방울이 춤추고 있었다.

그 순간, 흠칫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직이야. 절로 눈을 꼭 감았다. 떨어지는 비가 꿈쩍 않고 있는 내 얼굴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귓가에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지난 2년 반 동안 비는 항상 거기 있었다. 아무리 숨을 죽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심장 고동 소리처럼. 아무리 세계 눈을 감아도 완전한 어둠을 만들지 못하는 눈꺼풀처럼. 아무리 마음을 진정해도 한시도 침묵할 수 없는 심장처럼.

나는 천천히 숨을 내뿔으면서 눈을 떴다.

비.

호흡하듯 울렁이는 검은 바다에 하염없이 비가 빨려 들어갔다. 마치 하늘과 바다가 공모해 알갭게 해수면을 밀어 올리고 있는 듯했다. 나는 두려워졌다. 몸속 저 깊은 곳부터 떨려오기 시작했다. 갈가리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난간을 힘껏 잡았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와 풍부한 표정, 시시각각 변하는 목소리의 톤, 두 갈래로 묶은 긴 머리를. 그리고 다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있어. 그녀가 도쿄에 살고 있어. 그녀가 있는 한 나는 이 세계와 단단히 이어져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마. 호다카.”

그날 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도망쳐 들어온 이케부쿠로의 호텔,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큰북 같았다. 같은 샴푸 향기와 무엇이든 용서할 것만 같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 어둠 속에서 새하얗게 빛나던 피부.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

나는 문득 지금도 그 호텔에 있고, 미래의 내가 데자뷔처럼 페리에 탄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제의 졸업식도 이 페리도 모두 착각이고 진짜 나는 지금도 그 호텔 침대 위에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는 그친 상태이고, 그녀도 내 곁에 있고, 평소와 다름없이 변함없는 일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적이 높이 울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철제 난간의 감촉과 바다 냄새, 수평선에 간신히 걸려 있는 섬의 모습을 확인했다. 아니야, 지금은 그날 밤이 아니야.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페리에 흔들리고 있는 여기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진짜 나야. 정신 차려. 처음부터 생각하자. 비를 노려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와 다시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해해줘야 한다. 아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생각해줘야 한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뭘 선택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은-그래, 분명 그날 시작됐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걸 목격한 날, 그녀가 말해주었던 그날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중략)

“㉢그 풍경. 그때 내가 본 건 전부 꿈이었을지도 몰라.”

오래전 그녀는 내게 말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알고 있고 그 후 같은 풍경을 함께 보게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세계를.

그녀와 함께 보낸, 그해 여름.

㉤도쿄의 하늘 위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꿔 버렸다.

- 신카이 마코토, 『날씨의 아이』 -

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②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하여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교’에 퍼진 ‘나’에 대한 소문에 대해 ‘나’는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그 여름의 일’을 ‘2년 반’동안 ‘고스란히 가슴에 품기 위해 노력해 왔다.
- ③ ‘나’는 평소에도 ‘그 사람’을 떠올리곤 했다.
- ④ ‘나’는 ‘2년 반’ 전에 ‘그 사람’을 만났지만 이후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 ⑤ ‘나’는 잠시 ‘어제의 졸업식’ 마저도 전부 ‘2년 반’ 전의 자신이 하는 ‘착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호다카’를 걱정하며 그를 안심시키려는 ‘그녀’의 의도가 드러난다.
- ② ㉡에는 ㉢과 달리 ㉠에 의해 ‘호다카’에게 유발된 정서를 ‘호다카’ 스스로가 부정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에는 ㉣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호다카’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④ ㉣에는 ㉡과 달리 과거 사건에 대한 ‘호다카’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⑤ ㉣에는 ‘그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질책하는 ‘호다카’의 정서가 드러난다.

7. 윗글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그녀’를 만난 ‘호다카’는 ‘그녀’와 함께 ‘그 여름의 일’에 휘말리고, 이는 ㉠으로 돌아간 ‘호다카’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② ㉠과 ㉣은 모두 ‘호다카’의 ‘변함없는 일상’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이는 ‘호다카’가 ‘그녀’에 대한 입체적인 감정을 갖는 계기가 된다.
- ③ ‘호다카’의 시야에 담긴 멀어져가는 ㉠의 모습은 ㉣에 다시 가까워져가는 ‘호다카’를 은유한 것으로, 이는 ‘호다카’의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 ④ ㉠에 내리는 ‘비’는 호다카가 ㉣에서 겪은 일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검은 바다’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호다카’가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⑤ ㉣은 ‘호다카’가 ‘그 거리에서 살고 싶어하던 곳으로, 이는 ‘이케부쿠로의 호텔’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며 그 때를 그리워하는 ‘호다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씨의 아이』는 세카이계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이때 세카이계(世界系)는 주인공과 그 일행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인간 관계 혹은 감정 문제가 세계 전체의 운명으로까지 귀결되는 서사 장르이다. 세카이계 작품에서 ‘나와 너의 관계’라는 작은 연결은 구체적 설정이나 과정 없이 ‘세계의 운명’등의 추상적이고 거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이는 세카이계의 주 독자인 청소년의 과잉된 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작품은 ‘너’와 ‘나’에 초점을 맞추기에 다른 것은 크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 ① 세카이계의 주 독자층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청소년기의 과잉된 자의식이 반영된 것일 수 있겠군.
- ② 세계와 단단히 이어져 있다는 주인공의 생각은 주인공 일행 간의 미시적인 상호작용 만으로 거시적인 영향력을 끼쳤음을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겠군.
- ③ ‘우리’라는 대명사로 표상되는 작은 관계가 세계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꿔 버렸다는 표현에서 이 작품이 세카이계의 전형적인 예시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세계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군.
- ⑤ 그녀와 다시 만나기 전에 주인공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최대한 생각해두려고 하는 것은 주인공 일행이 구체적 과정 없이 추상적이고 거대한 문제에 영향을 줬기 때문일 수 있겠군.

[9~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흑판의 이 한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저 아이의 심상은 읽을 수 있습니까
- ㉡ 그 마음을 검게 물들인 것은
어이, 누구야, 어이, 누구냐고?

- 주판으로 이 식을 풀 수 있습니까
- ㉢ 저 아이의 목의 고리도 풀 수 있습니까
우리들 이대로 괜찮습니까
어이, 어쩔 거야, 야, 어쩔 거냐고?

- 면적비의 공식을 말할 수 있습니까
- 어린 시절의 꿈은 말할 수 있습니까
- ㉣ 그 꿈마저 시궁창에 버린 것은
㉤ 어이, 누구야, 이미 알고 있잖아

- 언제쯤이야 어른이 되겠습니까
- 애초에 어른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 어느 분께 여쭙보면 되겠습니까
- 어이, 어쩔 거야, **이제 어찌되든 좋아**

- 네루, 『로스트윈의 호곡』 -

(나)

떠들썩한 나날에 웃을 수 없게 되어버린
내 눈에 비치는 너는 아름다워
끝나지 않는 밤에 흘러넘친 눈물도
너의 웃는 얼굴에 녹아가
변하지 않는 나날에 울고 있었던 나를
너는 상냥하게 끝으로 이끌어
잠기듯이, 녹아가듯이
얼룩진 안개가 개어져
잊어버리고 싶어서 가뒹두었던 나날에
내밀어준 너의 손을 잡아
시원한 바람이 하늘을 헤엄치듯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어
이은 손을 놓지 말아줘
둘이서 지금, 밤을 달려나가고 있어

- 요아소비, 『밤을 달리다』 -

(다)

8월 15일. 해는 벌써 졌는데도 주변에는 무더운 공기가 남아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내 몸에서는 땀이 끝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잘 있어"

그녀에게서 온 세 글자의 문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난 바로 알아챘다. 추석임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던 나는 돌아갈 체비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 울타리 밖에 초점 없는 눈을 한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번으로 네 번째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한다. 삶에 대한 본능 - '에로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 죽음에 대한 본능 - '타나토스'의 지

배를 받는 인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전자지만, 그녀는 영락 없이 후자였다.

그녀가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녀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만난 건 지금처럼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녀를 내가 도와준 것이 계기였다. 같은 아파트에 최근 이사 왔다는 여자. 동그랗고 귀여운 눈동자에 통통한 입술과 귀여운 생김새를 하고 있지만, 어딘가 덧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녀는 한순간에 내 마음을 빼앗았다. 분명 첫눈에 반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그녀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됐고, 금세 친해졌다. 악덕 기업에서 근무하며 혼자서 외롭게 살던 나에게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할 때, 나에게 꼭 연락을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편이 확실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만났을 때처럼 내게 자살을 막아주면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마음 어딘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맘대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도 이렇게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하아, 하아..."

아파트 옥상에 도착했다. 울타리 너머에 서 있는 그녀의 등을 발견했다.

"기다려...!!"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무더운 공기와는 반대로 차가웠다.

"놔"

중소리를 닮고, 덧없이 귀여운 목소리. 난 그녀의 목소리도 좋아했다.

"왜, 그렇게, 너는...!"

"빨리, 죽고 싶어"

"대체 왜...!"

"사신이 부르고 있으니까"

그녀는 '사신'을 볼 수 있다.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 중에서도 흔치 않은 증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신'은 '타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인간만 볼 수 있다.

"사신 같은 건 없어"

"왜 몰라주는 거야...!"

내가 사신을 부정하면, 그녀는 늘 울부짖었다.

사신은 그걸 보는 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모습을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상형의 모습인 것이다.

사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에게는 허공을 보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녀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자아이 같다. 그에 반한 듯한 표정. 나는 그녀의 그 표정이 싫었다.

"사신 말고, 나를 봐"

"싫어...!"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려 해서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과...!"

"! 미안해..."

하지만, 네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 손을 뿌리치려 했으니까. 나를 봐주지 않았으니까.

"사신은 이렇게 안 해...!"

내 마음에 거무칙칙한 것이 몰려온다.
 "어째서...!"
 어째서,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사신에게 질투하다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정말 싫어"
 나도 싫어.
 "이제 지쳤어"
 나도 지쳤어.
 "빨리 죽고 싶어"
 "나도 죽고 싶어!!"
 그때,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방긋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를 보자마자 갑자기 거무칙칙한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라, 이거 혹시.
 "드디어...알아챈 거야?"
 "응...드디어 알았어"
 "정말...? 다행이야"
 아, 그런 거였어.
 네가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나를 불렀던 건 내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
 너는, 나를 데려가고 싶었던 거야.
 내게 "사신"은 그녀였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간다. 어느새 무더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갈까"
 "그래, 가자"
 손을 붙잡은 너와 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초조함에서 벗어나듯이 밤하늘을 향해 달려나갔다.
 - 호시노 미야, 『타나토스의 유혹』 -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각 행의 마지막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 ②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관조하는 태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0. <보기>를 통해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로스트원의 호곡』은 일본의 교육 체제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본은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도 비평준화라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편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가사를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에 치이며 살아가는 같은 문제로 고민이 많은 한국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제목의 ‘로스트원’은 ‘Lost One(길을 잃은 자)’을 뜻하고, ‘호곡(號哭)’은 목 놓아 슬피 운다는 뜻이다.

- ① ㉠: ‘흑판의 저 한자’와 ‘저 아이의 심상’은 ‘길을 잃은 자’가 읽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 자신을 입시 스트레스에 몰아넣는 ‘길을 잃은 자’의 부정적 자기 인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 ‘그 마음’이 ‘검게 물들었다’는 공감각적 표현은 ‘길을 잃은 자’가 자기 자신을 입시 스트레스에 몰아넣은 결과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이는 ‘길을 잃은 자’가 목 놓아 슬피 우는 ‘호곡’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③ ㉢: ‘저 아이’는 표면상으로는 ‘길을 잃은 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재로는 ‘길을 잃은 자’ 자신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이는 목에 ‘고리’가 채워졌다는 것은 ‘길을 잃은 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 ‘그 꿈’이 ‘시궁창’에 버려졌다는 것은 스스로가 바라는 바를 알지도 못한 채로 입시 환경에 내던져진 ‘길을 잃은 자’의 상황을 환기하는 표현으로, 이는 ‘길을 잃은 자’가 목 놓아 슬피 우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⑤ ㉤: ‘길을 잃은 자’가 ‘어이, 누구야’라고 자문한 후 ‘이미 알고 있다’고 자답하는 표현으로, 이는 ‘길을 잃은 자’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11. (나)의 화자와 (다)의 ‘나’가 동일한 인물일 때,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일이 ‘떠들썩한 나날’인 이유는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 ② ‘난 바로 알아챘다’는 표현에서 ‘그녀’의 ‘세 글자의 문자’에 놀란 감정이 드러난다.
- ③ ‘내 눈에 비치는 너’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녀’가 ‘도와달라고 마음 어딘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 ④ ‘지쳤기 때문에 ‘내밀어준 너의 손’을 잡았다.
- ⑤ ‘무더운 공기’가 아닌 ‘시원한 바람’을 느낀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초조함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12. 타나토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로스'와 경쟁한다.
- ② '나'를 지배하려 한다.
- ③ '그녀'를 자살하도록 이끈다.
- ④ '그녀'의 도움 요청을 방해한다.
- ⑤ '그녀'를 통해 '나'의 욕망을 일으킨다.

13.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우리들'은 1인칭 복수 대명사로 화자의 고뇌를 공유하는 자가 존재함을 함축한다.
- ② (가)의 '이제 어찌되든 좋아'는 화자의 고뇌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다)의 '그 거무칙칙한 것'은 '사신'과 달리 '그녀'의 주목을 받을 수 없던 '나'가 느끼는 열등감을 은유한다.
- ④ (가)의 '어른'은 화자가 회의하는 대상이고, (다)의 '서늘함'은 화자가 희망을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다)의 '나'는 (가)의 '어느 분'이 될 수 있다.

14. ㉠와 ㉡에 제시된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가 악덕 기업이라고 표현한 곳으로, '나'가 '타나토스의 유혹'을 느끼도록 하는 공간이다.
- ② ㉡는 '그녀'가 반복적으로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곳으로, '사신'을 주제로 '나'와 '그녀'가 연쟁하는 공간이다.
- ③ ㉠은 '나'가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공간으로, '나'가 비로소 '사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공간이다.
- ④ ㉡는 '나'가 '그녀'를 최초로 만난 공간으로, '그녀'는 고통받는 '나'를 구원하러 온 '천사'로 묘사된다.
- ⑤ ㉠와 ㉡는 모두 '나'가 고통받는 공간으로, '나'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공간이다.